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중남미 권역



해마 모양의 섬나라로 여행

김민지

필자는 중미 파나마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으로 저렴한 해외여행을 계획하다 콜롬비아 산안드레스섬을 4박 5일로 여행해 보기로 했다. 파나마에서는 미국 달러가 콜롬비아 페소보다 상대적으로 환율이 좋아 전혀 부담은 없었지만, 6월은 우기라서 맑고 짙은 하늘은 볼 수 없을 것만 같아 걱정이 되었다. 이미 결정한 이상, 우기에도 사진 잘 찍는 방법과 구석구석 맛집을 찾아보았다. 내 입맛은 이제 현지화가 되어있어 호불호가 있고, 생소한 맛을 표현하는 한국인 블로거보다는 현지인들의 코멘트를 보고 맛집 몇 군데를 골라보았다. 숙소는 에어비앤

비를 통해 시내에 잡고, 해변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로 잡았다. 섬의 면적은 약 30제곱킬로미터(km²)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서 4박 5일 동안 웬만한 곳은 다 들릴 수 있다. 다행히 여행 내내 저녁 무렵에 잠시 동안만 비가 내렸고, 짙은 날씨에 산안드레스섬을 누빌 수 있었다. 참고로 입국 전에는 입도비를 내야 하는데, 탑승 전 항공사를 통해 구매해야 하고 무조건 현금 지불만 가능하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항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산안드레스섬의 입도비를 판매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인 것 같다. 첫날은 도착하자마자 남은 현금으로 공항에서 환전하기로 했다. 환율은 역시나 좋았다. 오히려 환전소는 작은 금액의 동전이 부족해 손해지만 큰 금액의 동전을 건네 주면서 이렇게 가져가도 좋다고 한다. 아주 소소한 이득. 기분 좋게 공항택시를 불러 숙소까지 가는데 10분. 역시 조그마한 섬. 버스를 탈까도 했지만 내 사전조사에서 택시비가 비싸지 않았을 뿐더러 미터기를 쓰지 않아 바가지를 씌울 수 없고, 구역별 정해진 요금대로만 청구하기 때문에 언성 높일 일도 없었다. 투어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보트가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첫날은 시내 탐방과 메인 해변에서 놀기로 했다. 내가 사진으로만 보았던 맛집도 발견하고, 옷가게에 들러서 구경하는 척 에어컨 바람을 쐬었다. 글 서두에 설명은 안 했지만, 남편이랑 같이하는 여행이다. 남편은



코코로코 칵테일

브라질-파나마 혼혈계로 외국인인데, 레게 같은 머리를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고 했다. 해변에 도착하자, 샴푸를 하면 바로 풀리는 땀을 머리를 해주는 곳을 발견하고, 남편은 한껏 머리에 땀을 부렸다. 나는 옆에서 유명한 코코로코라는 칵테일을 사먹었다. 한 잔만 먹어도 알팔팔해지는 코코넛물과 보드카, 럼, 데킬라가 들어간 엄청난 혼합 음료였다. 점심은 내가 봐 두었던 맛집에서 먹고, 둘째 날 일정을 위해 투어 패키지 구매와 셋째 날 섬 전체를 돌기 위해 카트 대여를 알아보러 다녔다. 섬 전체라고 해 봤자, 맘먹고 정차 안하고 돌면 1시간도 안 걸린다. 투어 패키지는 현지 여행사에서 바로 구매하는 게 좋은데 하루 종일 투어인데도 40달러(한화 약 5만 3,000원)가 안되기 때문에 흥정하려고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 메인 해변가에 있는 여행사에서 구매하면 좋은데, 투어를 떠나는 출발점도 해변이고, 돌아오는 곳도 해변이기 때문에 문제나 문의할 게 생기면 바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 산안드레스섬은 작은 주변 섬이 5개 정도 있는데, 주로 관광객들이 투어로 가는 곳은 아쿠아리오, 조니케이 및 로키케이 섬이고 하루만에 다 돌아볼 수 있다. 둘째 날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투어를 했다. 아쿠아리오섬을 먼저 방문했다. 가이드 설명을 듣고 펼쳐지는 에메랄드색 바다에 몸을 던졌다. 여기서도 코코로코 칵테일을 마셨다.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보다 어떻게 담아주는지가 나에겐 볼거리였다. 속을 판 코코넛 열매를 그대로 사용해 예쁘게 장식해서 담아준다. 아쿠아리오섬은 부속섬인 헤인즈섬까지 걸어서 방문할 수 있는데 로프로 연결되어있다. 수심은 얕다. 헤인즈섬까지 남편과 수영하면서 수다



조니케이섬에서 만난 이구아나

떨고 다시 돌아와 스노클링을 했다. 물고기가 꽤 많았다. 햇볕이 못 건널 만큼 따가워 그늘진 레스토랑에 앉아 생선구이를 기다렸다. 맛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이후 가이드 안내에 따라 조니케이섬으로 이동했다. 이구아나가 많은 섬인데, 상추를 줘볼까? 하고 부풀은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땅에 떨어진 피자 한 판 잔여물을 끝내고 있었다. 누가 일부러 준 건 아닌 것 같고 바람이 불어 쓰레기통에 있던 피자 잔여물이 그릇째 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우리는 조니케이섬을 끝으로 투어를 마쳤다. 로키케이섬에서는 난파선을 보러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난파선 잔해들이 어떤 형태로든 흩어져 있을 테고 녹슨 배에 베이기라도 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로키케이섬 투어는 패스하기로 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끝내고 캔 맥주를 사러 근처 상점에 들렀다. 산안드레스섬은 면세구역이라 맥주도 숙소에서 부족함 없이 마셨다.

셋째 날은 카트를 렌트해서 섬 전체 투어하는 날이다. 산안드레스섬은 해마 모양이다. 해마가 오른쪽을 보면서 서 있는 모습이다. 가장 섬다운 모양이랄까. 남편이 카트를 몰고 나는 정차할 곳들을 확인했다. 섬 왼쪽을 시작으로 돌아 해마 머리쪽에서 'I LOVE SAN ANDRES' 사인판에 정차해 사진을 찍었다. 글자 수 자체가 길어서 얼굴이 요목조목 다 보일 만한 사진은 못 건졌다. 해마 허리쯤에 오면 'I LOVE SAI' 사인판이 하나 더 있는데, SAI는 SAN ANDRES ISLAND의 약자이다. 다음 목적지는 대망의 웨스트뷰 천연 워터파크다. 바로 맞은 편 웨스트뷰 레스토랑에 주차하고 남편과 손잡고 두근두근 웨스트뷰에 입장했다.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서둘러서인지 그늘막이 있는 썬베드를 대여할 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지 30분 뒤에 관광객이 몰려왔고, 서로 좋은 썬베드를 차지하려고 짐을 먼저

썬베드에 던져놓고 계산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우리는 여유롭게 코코로코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면 위로 3미터(m)정도 우뚝 솟아 있는 바위에 다이빙대가 2곳 정도 설치되어 있었고, 바위를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있었다. 난 겁쟁이라 구명조끼를 입고 계단으로 내려가 수영을 했고, 남편은 제일 높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려 오리처럼 발만 젖는 수영법으로 오랫동안이나 떠 있었다. 한참을 놀다 다이빙대에 주목할 만한 여성이 나타났다. 아마 다이빙 선수였을 것 같다. 공중회전에 안정감 있는 다이빙실력에 모두 박수를 보냈다. 그 뒤로는 어린이 다이빙대에서 주목할 만한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다이빙이 무서워 목 터져라 울더라도 포기하는 건 싫어하는 고집 있는 아이였다. 그렇게 10분 넘게 서서 울다가 엄마 손에 이끌려 내려왔다. 그래도 사람들은 아이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사인판

우리는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 해마 꼬리쪽에 있는 오요 소빨라도르에 도착했다. 파도가 치면 바위 구멍에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내 키만큼 솟구칠까 하며 쳐다보고 있었지만, 우리는 배고픔에 저서 근처 레스토랑에 앉아 먹으면서 솟구치는 모습을 기다렸다. 솟구치는 소리는 들리는데 아주 알պ한 솟구침이 반복됐다. 바다가 거칠어야 더 잘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 잠잠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옆 차르키토스해변으로 향했다. 마치 아기들을 위한 천연 수영장 같았다. 수심이 얇을 뿐더러 파도가 치는 모래사장으로부터 7m 정도에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보호막처럼 길게 늘어진 바위들이 있었고 바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천연 수영장이 그 뒤로는 쭉 겹겹이 긴 바위들이 있었다. 역시나 아기들과 동행한 가족들이 많았다. 이후 해마 목쪽에 있는 올드포인트 맹그로브 공원에 도착해 산책을 했다. 맹그로브가 가득한 곳에 목재다리가 길게 설치되어 있고, 다양한 종의 새와 게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게들은 더워서 숨어있었고 우린 게 허물들을 보면서 투어를 마쳤다. 저녁은 맛집 중에 맛집 라 레가타에서 먹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기 줄이 길었다. 많이 기다렸지만 지루할 틈이 없는 인테리어와 재활용 병들로 만든 네온 빛의 조명이 너무 예뻐다. 음식들은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와우 소리가 나올 만큼 맛있었고 여기는 정말 꼭 가봐야 하는 곳이다. 마지막 넷째 날은 숙소에서 늦잠도 자고 메인 해변에서 오후내내 나른하게 보냈다. 이렇게 우리의 여행은 끝을 맺고 각자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해보았다. 난 라이언피시를 먹어보지 못한 게 아쉬웠다. 카리브해에서는 라이언피시가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외래종이라 라이언피시 잡기 대회 개최나 음식 조리법 개발 등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가 방문한 레스토랑에는 메뉴에 없었다. 남편은 투어 판매나 카트 대여의 고객행위가 불편했다고 한다. 몇 번을 거절해도 따라다녀 더운 날씨에 불쾌 지수가 더욱 올라갔다. 그리고 작은 섬이라 통신사가 제한돼 있어 로밍이 불안정했다. 2021년 말부터는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개설했다고 했는데 어쩐지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역시 우리는 인터넷 없이는 불편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다.



아기들을 위한 천연 수영장, 차르키토스 해변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